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10001

Phone : 646. 832. 7397

212. 736. 8500 (EXT 355, 384)

Website : <https://stfrancisnyc.org/>

Email: seoulosb@gmail.com

주임신부 : Brian Jordan, OFM

지도신부 : 이용희 루카 (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luke0829ofm@gmail.com

전교수녀 : 안혜진 마리루시 (뜻정포교베네딕도회서울수녀원) seoulosb@gmail.com

사목회장 : 이지연 안나레지나 917. 282. 1662

제1독서 | 이사야서 43,16-21

화답송 | 시편 126(125).1-2ㄱ.2ㄷㄹ-3.4-5.6(◎ 3 참조)



(후렴) 주님이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 주님이 시온을 귀양에서 풀어 주실 때, 우리는 마치 꿈꾸는 듯하였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넘치고, 우리 혀에는 환성이 가득 찼네. ◎

○ 그때 민족들이 말하였네. “주님이 저들에게 큰일을 하셨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

신앙고백 : 사도 신경

† 전능하신 천주 성부

◎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밀줄 부분에서 고개를 숙인다.)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사순, 부활시기에는 사도 신경을 할 수 있다.” 「로마 미사경본」

제2독서 | 필리피 3,8-14

복음환호송 ◎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너그럽고 자비로우니 이제 마음을 다하여 나에게 돌아오너라.

복음 | 요한 8,1-11

영성체송 | 여인아, 너를 단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주님,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으리라.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

성가 | 입당성가 226. 1~2 예물준비 461

영성체 166 파견성가 119. 3~4

미사 봉헌

연미사 지향

이상영 바오로의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유덕일의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정일환 도미니코
이승윤 - 1주기

생미사 지향

김신옥 쯤마 갈가니
해바
기정민 스테파노
정종철 안드레아
손명희 엘리사벳 가정
성령새신 봉사자 참가한 모든 분들을 위하여
이 마리로사 부부

날짜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지향	성찬봉사	복사
4월 6일	이지훈	송명근	민재인	민덕미	유정옥	김수현 조성윤
4월 13일	백이백	민완준 이경자 고은경			김종선	복사 5명

미사, 성사, 교리 안내	
주일 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청년 미사	매월 2번째 토 18:00 아래 성당
고해 성사	08:30-08:50 아래 성당 고해소
혼인 성사	신부님께 직접 문의
유아 세례	매월 2번째 주일 미사중 *신청: Sr. 마리루시
봉 성 체	매월 1번째 목요일 *신청: Sr. 마리루시
예비신자 교리 견진 교리	일반인을 위한 교리 *신청: Sr. 마리루시 환자, 어르신을 위한 방문교리 *신청: Sr. 마리루시

재속프란치스코회 뉴욕 한국순교자형제회
(Secular Franciscan Order of New York Korean Martyrs Fraternity)

지원자 모집: 성 프란치스코의 영성을 따르고자 하는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모집기간: 수시 **지원대상:** 견진성사 받으신 형제/자매님
지원방법: 1. 봉사자 면담 2. 지원서 제출
문의: 646. 685. 7788 봉사자 원혜미 엘리사벳

성주간 전례 안내

4/13	주님 수난 성지주일 (Palm Sunday)	AM. 09:15
4/17	주님 만찬 성 목요일 (Thursday of Holy Week)	PM. 7:00
4/18	주님 수난 성 금요일 (Good Friday of the Lord's Passion)	PM. 7:00
4/19	파스카 성야 (Easter Vigil)	PM. 5:00
4/20	주님 부활 대축일 (Easter)	AM. 09:15

* 4/19(토)-4/21(월)까지 고해성사 없습니다.

교우들을 위한 사순 판공성사

일정: 4/13 PM.2:00-5:00
고해사제: Fr. 이웅희 루카. **장소:** 사무실
신청: 646. 832. 7397(Sr. 마리루시)

어린이 사순 판공성사

날짜: 4/13 미사 전 08:30~08:50 아래성당

판공성사표

사순시기 중 받은 모든 고해성사는 판공성사로 간주됩니다. 본당 또는 다른 곳에서 고해성사를 보신 교우분들은 성사표를 기록하여 사무실 앞 박스에 넣어주세요.

축하드립니다! : 4월 영명축일

4.4 베네딕토(작은형제회) 4.11 쟼마
4.14 리드비나 4.16 벨라렛다
4.21 안셀모 4.25 마르코 4.29 카타리나

주일 미사 후 친교 모임

다미아노 홀/ 성당 밖 좌측 20m

오랜만에 성당에 나오신 분, 새로 전입오신 분, 처음 뵙는 분들께 먼저 다가가 따뜻한 인사를 나눕시다!

주일학교 교리교사 모집

유치부 & 초등부(3명), 중고등부(2명)
지원자격: Back Ground Check 완료하신 분
문의: 교감 정승연 플로라 646. 287. 2582

2025 레지오 마리에 단원 모집

"레지오마리에"는 성모님과 함께 기도와 봉사로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는 평신도 사도직 단체입니다.

구세주의모후Pr. 회합: 매주일 8am 단장: 347. 633. 3767
희망의 모후Pr. 회합: 매주목 6pm 단장: 347. 514. 5783
우리즐거움의원천Pr. 회합: 매주일 11:10am
단장: 929. 208. 5147

* 모집 대상: 세례 받은 남녀 교우(어른, 청·장년)

사회복지 분과 위원 모집

사회복지 분과에 함께 하실 분들을 초대합니다.
모집 인원: 4명
문의: 516. 521. 3113 강호영 안드레아

부활 꽃 봉헌

부활절에 사용할 꽃을 봉헌하실 분은 신청 바랍니다.
신청: 646. 832. 7397(Sr. 마리루시)

4월 성사반 개설

어린이: <첫영성체반> / **학생·성인:** <견진성사반>
(견진성사 대상: 2025년 3월 이전 세례성사 받으신 분)
문의: 646. 832. 7397(Sr. 마리루시)

본당 제의방 봉사자 구합니다!

본당 요청으로 미사 때마다 사용하는 모든 성작 관리 및 성작수건 세탁 봉사하실 분을 구합니다.
신청: 646. 832. 7397(Sr. 마리루시)

* 본당 메일 주소/ 핸드폰 번호 바뀌었습니다.
연락 시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 공지사항
- 기부
- 주보

내 아버지여
 할말이시거든
 이 거룩한 대에서
 지내게 하옵소서
 간절히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마태복음 26장)



투병 중이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Mt 25,4)

김택영알버트 이옥기수산나 이남석베드로 김옥지아가다 이경희미카엘라 김동희헬레나 정창동폴리나 지군자스테파니 진정은마리아 박재호베네딕트 이경봉요셉그레고리오

옥토
 한중식 전문점

(646) 833-7864
 1 E 33St. NY, NY 10016
 (33가, 5애비뉴-매디슨 사이)
www.octo.nyc

WONJO
 K BBQ since 1993

(212) 695-5815
 23 W32St. NY, NY 10001
www.newwonjo.com

UDON Lab
 udon & izakaya

(646) 838-5338
 43W 32nd St. New York, NY 10001
www.udonlab.com @udonlab_nyc

더큰집
 The Kunjip

(212) 564-8238
 32 W 32St. NY, NY 10001
www.kunjip.nyc

Clear Laser CITY CLINIC

얼굴 리프팅 212.697.1802
 색소 미백 레이저 카카오톡: clearlascity1
 주름 보톡스, 필러 5th Ave & 42nd St
 뉴욕 도서관 앞

이민/부동산 (아오스딩)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한국 남도 7박8일 관광

지도자, 경영인 정신이해와 문화 역사, 건강 체험, 혼자서 체험할 수 없는 남도 여행
 고향사랑 국제 연대 847)269-9422
 131 E 69th St. New York 10021

마리아 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TEL. 212-594-7773, 646-808-7322

Clara Clara Inc.

맨하탄 사무실이나 기타 공간이 필요하신 분 연락바랍니다.
 (917) 596-1460
 306 W. 37th Street
 New York, NY 10018

Nest 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917) 370-0394
krishap@nestseekers.com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 WEST 58 WINE & LIQUOR

린다킴 데레사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10AM-10PM / SUN:12PM-9P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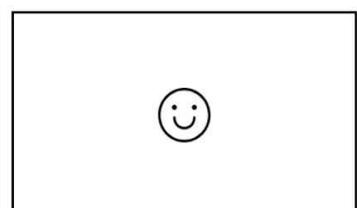
Kwangsuk "Joseph" Kim

공인 부동산 중개사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408-220-4569
 Furumoto Realty of New York City, Inc.
www.furumoto.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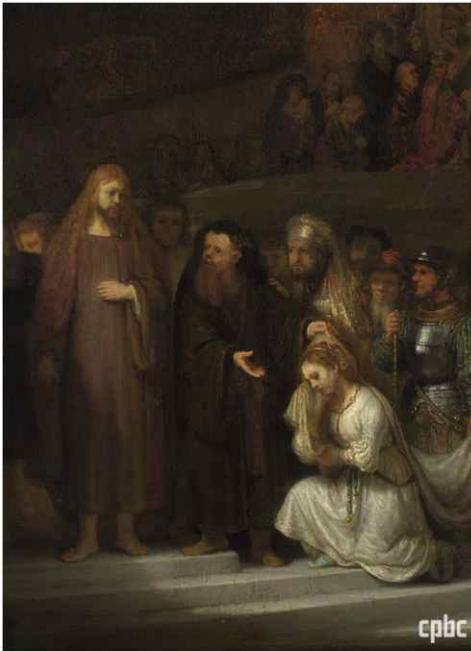
MIDTOWN SMILE DENTAL
hello@midtownsmiledental.com

임지수 마리아
 (212) 532-8666
 36 E 36th St. Suite 1K
 (36가, 매디슨-파크 사이)



생활속의 복음

[사순 제 5주일] :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엘리엇의 '간음한 여인' (1864년)

오늘 예수님께서 만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은 하느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아들이기 거부하는 불충실한 이스라엘 백성을 은유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호세아를 비롯한 예언자들은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계약(契約)을 신랑과 신부 사이의 혼인 계약으로 묘사합니다. 이에 따라,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이 하느님의 사랑을 멀리하여 계약에 불충실하고 우상숭배에 빠지는 것을 신랑이신 주 하느님께 불충실한 간음으로 규정합니다.

호세아 예언자는 자신의 불행한 결혼 생활, 즉 계속 집을 나가 외간남자와 바람을 피우는 아내를 달래고 집으로 데려오는 삶을 돌이켜보다가, 주 하느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그러하다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그 여자를 달래어 광야로 데리고 가서 다정히 말하리라. (...) 나는 너를 영원히 아내로 삼으리라. 정의와 공정으로써 신의와 자비로써 너를 아내로 삼으리라. 또 진실로써 너를 아내로 삼으리니 그러면 네가 주님을 알게 되리라.” (호세 2,16.21-22)

“하느님의 사랑은 분명히 에로스라 할 수 있지만, 또한 전적으로 아가페이기도 합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 회칙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9항)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인간의 죄를 심판하는 냉혹한 재판관이 아니라 하느님의 자비를 드러내는 신랑으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묵시 19,7-9 참조)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요한 8,7) 예수님께서서는 죄를 심판하러 오지 않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요한 15,12) 예수님 안에서 드러나는 하느님의 이 무한한 사랑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응답하는 길은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요한 4,20) 인간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자비에 우리가 응답하는 길은, 우리가 관계 맺고 사는 이웃에게 하느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베푸시는 자비와 용서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가치 기준의 중심은 인간의 자기 결정권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머니 복중에 있는 태아는 하느님께서 주신 생명이라는 무한한 존엄성이 무시되고 여성의 자기 결정권에 속한다는 가치관이 팽배합니다. 이런 시대의 사조는 남녀 간 상호 존중과 인격적인 사랑을 바탕으로 이루어야 할 결혼 생활과 가정 생활에 다툼과 이혼 등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자비와 용서에 응답하는 길은 인간 삶의 중심을 인격적인 존중과 사랑에 두고 이 사랑의 원리를 살아갈 때 가능할 것입니다. 즉, 그 어떠한 극한적인 실존 상황 안에서도 사랑을 최고의 가치 규범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 구요비 주교 | 서울대교구 총대리-

‘환대’의 공동체 함께 만들어가요!

성당 출입 시 직원분들께 따뜻한 인사 부탁드립니다. 이웃에게 보내는 환한 웃음은 하느님께 드리는 작은 사랑의 선물입니다.